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3남, 5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속회는 이번 주 모임 이후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홍천 동면교회에서 재배한 유기농 감자를 판매합니다. 5kg에 10,000원입니다.

수면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절전의 효과도 있고 짜증내기 쉬운 여름에 짜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왕하 5:1~14 / 시 30 갈 6:1~6 / 눅 10:1~11

골 2:6-15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최영혜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박경원 허정호 박미연 조순덕 김정우 오늘설거지봉사 : 두란노 1속 다음 주 설거지 : 변재민 이소혜 강세기 이소애 황현성 새 교 우 : 정영례 노성희 설재용 김선희 김홍기 양정화 조은상 김소연 김원중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시간을 감사함 가운데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을 희망 가운데 내다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이, 계속 되는 굶은비를 피할 수 있는 변변한 방법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을바람과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구명자 권미정 김경수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수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영아 김윤정 김원종 김윤수 김인걸 문영혜
 김정애 김정진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노성희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방문성 박해경 방민
 방준 배근수 김금순 배부레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규만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석철 장혜숙 윤여민 임보람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옥
 이상재 이성범 권현숙 이용현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장근성 박희순
 장아름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정우선 정현모 차혜심 노미향 한규숙
 한기택 한상균 한성진 한완식 임정자 홍복선 홍선희 황현성 이오복
 무명2

감사헌금

강경희 강인식 김대규 박경애 김민지 김순복권사가족 신민철 안정자
 안효창 안준용 오미경 이광재 이미혜 이병수 정경례 정복순 차혜심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황현성 이오복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용원 박병구 이범석

녹색꿈헌금 김범진 박호규 강영님 송형철 양재성 장근성 박희순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노순옥	배부레
김재흥	최경미	차혜심	이소순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이명희
정경례	진정숙	박옥순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미영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이형숙	윤수진	이형숙	윤미경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홍춘숙	김경혜
박혜경	조항미	박혜	이기분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바닷가 마을

바닷가 마을로 들어가는 셋길
 낮달이 도라지 꽃밭을 바라보고 있네
 몸빼바지 입고 경운기 모는 젊은 아낙의 고향은 베트남 어디
 머릿수건 풀어 이마의 땀 훑치며 아따 꽃 참 이쁘오! 라고 남녘말로 말하
 네
 고향에도 이 꽃이 피오? 물으니 붉은 얼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네
 하늘에 하얀 달
 땅 위에 꽃
 보라색과 하얀색의 원고지 사이로 난 작은 길을
 키 작은 안남 여자가 경운기를 몰고 가네

- 광재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진리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보다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남, 5여선교회 주관 예배 설교 : 김기석 목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윤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권미정 집사 김훈동 권사

7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송동준 김윤정 김현주 김진경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사회적기업, ‘보물찾기’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주택가의 작은 건물.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가자 서너 명의 직원들이 알록달록한 인형을 제작하고 체험학습 교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곳은 부천시에서 교육문화 분야로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사회적기업 ‘보물찾기’(대표 이상숙)다.

‘보물찾기’는 교육사업으로는 독서교육과 역사교육, 숲·농어촌 체험학습을, 문화사업으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형극 활동 및 아이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어 공연까지 하는 인형극 교육을 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이는 9명. 모두 여성이고 주로 40대다.

보물찾기는 이제 설립 5년차가 되는 교육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기업’으로 제대로 앞을 내다보며 걸어가기에 길이 평탄하지 않은 않았다. 이 대표는 “처음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할 때엔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버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는 ‘돈 벌기 참 어렵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회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익 창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파트 수익은 대부분 강사비거든요. 강사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요. 강사 수입으로 매출을 모두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방과 후 교실에 대형 기업이 들어왔다. 자회사 교재를 팔기 위해 체험학습비 자체를 다운시켰다. 위탁영양을 하는 대형 청소년수련관 역시 지원을 받았다. 아무리 좋은 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도 거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곳과는 프로그램 비용에서 경쟁이 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기존 시장경제에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보물찾기가 힘을 쏟는 것은 ‘연대’다. 사회적 기업 하나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한 기업의 경쟁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역사회의 경제문화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물찾기는 부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를 함께 만들어 30여 개 사회적 기업과 연대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는 부천시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늘 매출에 신경 써야 하는 주식회사가 되었지만 보물찾기는 자신들의 출발을 잊지 않는다. 바로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체험 교육을 시키겠다’는 설립목적이다. 보물찾기는 주민 센터, 방과

후 학교, 작은 도서관 등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부천·안산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수업을 진행한다. 숲 체험 캠프를 진행해도 전체 인원의 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머지 반만 일반 모집을 한다. 이 대표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다녀오면 느낌이 남다르다”고 말한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다고 느껴요. 보듬어주고 더 잘해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게 우리의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대표는 간혹 쉽게 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만, “선생님들은 늘 도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저는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죠. 실험이지만 ‘한번 해보자’해서 가고 있어요. 실험과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사회적기업의 강점이 아닐까 해요.”

이상숙 대표에게 보물찾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를 묻자 “놀면서 배운다”라고 답했다. “아이들은 놀아야 정서가 순화돼요. 재미가 있어야 자기 안의 무한한 가능성도 끌어낼 수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야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래야 생각도 깊어지는 것이죠.”

이상숙 대표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들도 “스스로의 보물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안에 있는 이들의 소질 개발과 역량 강화가 중요한 비전이에요. 사실 지금은 어딜 가도 보물찾기에서 활동했다는 건 자부심으로 남죠. 그렇게 든든히 서서 또 다른 여성들이 모이는 동아리들의 마중물이 되고 싶어요.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린 시절,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할 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다. 열심히 찾아다니는데도 보물은 찾아지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 “찾았다” 소리치면 마음이 조금해졌다. 혹여 여러 개 찾은 친구가 옆에서 의기양양해 하고 있으면 속상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돌이켜보니 보물은 보물이라 하기엔 좀 부족한 것들이었다. 공책 몇 권, 연필 몇 자루, 좀 더 좋은 것은 크레파스 정도였으니 말이다. 보물찾기가 기다려졌던 건 보물 자체가 갖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찾는 동안의 설렘, 그리고 발견한 순간의 ‘찾았다!’는 환희 때문이었던 것 같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보물찾기는 스스로의,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다. 그리고 보물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동안 이미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 문양효숙,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